

여야, 세제개편 수정안도 온도차... 국회 처리 진통예고

새누리 "공평과세 강화 실질 개혁" 공감 민주 "부자감세 철회 없는 미봉책" 반발

정부가 13일 세금부담 증가의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제시하자 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稅) 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 때문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법제화하는 9월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세제개편수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대체로 공감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시



김한길 독도 방문... 1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한국령'이라고 글씨가 새겨진 바위 앞에서 "어떤 망언과 왜곡도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미래가 열리도록 일본 정부의 대외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필뉴스

는 형태로 증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수정안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예정대로 부자감세 기조 철회를 골자로 한 자체 세제개편안을 만들어볼 예정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수정안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기조와 신규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서민들에 대한 세금폭탄에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보려는 미봉책에 불과

하다"며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왜 대기업과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 퍼주기 하면서 유리직업인 봉급생활자·자영업자·농민들의 세부담 증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현행 3억원 초

과 고소득자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체 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이 서울광장 천막사에서 개최한 세제개편안 관련 토론회에서는 민주당의 '세금폭탄론'에 대해 시민사회의 비판이 빗발쳤다.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윤장현 "광주시장 출마 고민중"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 "주변 요구 외면 힘든 상황"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인 윤장현 광주·전남 비전21 이사장이 13일 "내년 광주시장 선거와 관련해 주변에서 강한 출마 요구와 압박을 받고 있어 고민중"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윤 이사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0년 이후 지역에선 정권교체 등 거대담론에 대한 화두만 던져지고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가 평가돼왔다"며 "시민의 정부, 시민을 위한 정부에 대한 고민 등 변화는 크게 없었다"고 진단했다.

윤 이사장은 "나 혼자만이라도 NGO, 대북지원·인권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정치권에 몸담지 않고 시민운동에 주력해왔다"면서 "하지만 지역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요구를 외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한 속상함,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 박원순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새로운 인물을 찾는 것 같다"고 지역 민심을 평가했다. 그는 박원순 효과에 대해 "정치인과의 행정경험을 가진 관료만



이 지방정치와 행정을 잘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박원순 시장이 생활정치를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안철수 의원과 교분이 있는"이라는 질문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 단일화에 관심을 뒀지만 안 의원과 교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순대 의대(안과 전문의)를 졸업한 윤 이사장은 전주고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광주시민연대 대표, 광주 YMCA 이사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리민중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와 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를 맡고 있는 등 30년간가량 국내 NGO 활동을 주도해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재오, 盧 前대통령과 조찬 회고하며 "朴대통령 卍인정국 풀어야" 우회 촉구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13일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2006년 4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갑작스런 조찬을 회고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서 "2006년 4월29일 저녁을 먹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해 청와대에서 조찬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며 "당시는 사학법 개정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여야가 매일 싸우고 있을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까'하고 울산에서 밤 늦게 차로 올라와서 청와대 관저로 갔다"며 "김한길 여당 원내대표가 먼저 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아침을 먹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한길 원내대표에게 '김 대표님 이번에는 이 대표 손 들어주시죠, 야당 원내대표 하기 힘든데 좀 도와주시죠, 양보 좀 하시죠'라고 제안했다"며

"순간 김한길 대표 얼굴이 굳었다. 모르고 온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계속해서 "김 대표는 '대통령님 당 분위기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당 분위기는 그게 아닙니다'라고 정색을 하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나도 당 분위기가 잘 압니다. 지금 당이 내 말 들었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 대표는 '당에 가서 보고해야 하겠습니까'하고 일어 서서 나갔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그날 두 가지를 배웠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과, 정국이 꼬여 여야가 싸울 때는 대통령이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같은 이 의원의 글은 국가정보원 댓글 국정조사로 검색된 정국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현오석·조원동 사퇴론' 확산

여당내부서도 "대통령에 부담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이후 정치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일각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나서 현 정부 경제라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제기하면서 현 경제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려면 재벌 보호를 주도해 온 경제부총리와 경제수석 등 현 경제라인에게 원점재검토

를 맡기면 안 된다"며 "현 경제팀과는 다른 정책 지향성을 가진, 서민과 중산층 민생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경제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마침내 '등골 브레이크'형 세제개편안의 전면적 철회요구가 관철돼 다행스러운 점도 있지만 대통령 발인과 태도는 유감 천만"이라며 "나라살림 기초인 세제개편안마저 대통령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꾼처럼 말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다. 원점재검토 지시에 앞서 해야 할 것은 국민에 대한 사과"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제2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은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두 사람에 대한 불만은 끊임없이 나왔으나 공개적 상에서 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덜 능력여 없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국정원 청문회 무산되나

핵심 증인 원세훈·김용관 불출석 의사 밝혀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14, 19, 21일 핵심 증인·참고인에 대한 청문회를 각각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첫 회부터 파행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두 핵심 증인이 14일 청문회에 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14일에는 몸이 안 좋아 나가지 어렵고 다음에 부르시면 나가겠다"는 뜻을 특위에 전달했고, 김용관 전 청장도 공판준비를 이유로 "마지막 청문회 일정인 21일 출석하겠다"며 14일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13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두 증인이 14일 나오지 않으면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청문회를 다시 잡아야 하는데 새누리당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14일 이후 청문회에 나오겠다"는 두 증인의 의사표시에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여야가 29명 중의 증인 가운데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14일, 나머지는 19일 청문회를 실시하고 이들 2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과 미합의 청문회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료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료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텐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료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p> <p>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p> <p>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p> <p>지상1층 미용실 23P</p> <p>지상1층 약국 69P</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p>	<p>지상2층 PC방 203P</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p> <p>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p> <p>지상2층 한정식 387P</p> <p>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p> <p>지상3층 일식 387P</p> <p>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p>